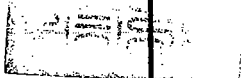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홍 재 하	일본명	
	한 자	洪 在 夏	이 명	
출 생 연월일	1852년 2월 14일		사 망 연월일	미 상
분 직	京城 西部 阿峴 兄弟井洞 204統 6戶(1911년 주소)			
주 요 경 력	1904년 이전			
	1852.2.14	출생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68쪽)		
	1882.6.15	三軍府 副司正 (국역승정원일기, 1882년 6월 15일)		
	1883.1.2	訓練院 部長 (같은 자료, 1883년 1월 2일)		
	1884.11.4	경복궁 수문장 (같은 자료, 1884년 11월 4일)		
	1885.3.5	훈련원 主簿 (같은 자료, 1885년 3월 5일)		
	1885.9.16	훈련원 判官 (같은 자료, 1885년 9월 16일)		
	1886.1.30	훈련원 僉正 (같은 자료, 1886년 1월 30일)		
	1886.6.11	左邊捕盜廳 종사관 (같은 자료, 1886년 6월 11일)		
	1888.6.30	內禁衛將 (같은 자료, 1888년 6월 30일)		
	1895.4.1	농상공부 主事(판임관5등) (승정원일기, 1895년 4월 1일)		
	1899.7.2	농상공부 주사(판임관1등) (관보, 1895년 7월 21일)		
1899.7.10	농상공부 주사 겸 법규교정소 주사 (같은 자료, 1899년 7월 12일)			
1900.5.22	侍從院分主事 (같은 자료, 1900년 5월 24일)			



1904년 ~ 1945년	
1905.3.1	농상공부 주사(판임관1등) (관보, 1905년 3월 7일)
1906.3.19	농상공부 참서관(주임관4등) (같은 자료, 1906년 3월 22일)
1907.6.20	농상공부 서기관(주임관4등) (같은 자료, 1907년 6월 27일)
1908.12	대한협회 군산지회 회원 (대한협회회보, 제9호, 1908년 12월 25일)
1911.2.25~1921.4.27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3월 3일, 1921년 5월 3일)
1912.8.1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받음 (같은 자료, 1913년 5월 31일[부록])
1915.8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京城協贊會의 부회원 (매일신보, 1915년 8월 26일 2면)

조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재직

- ▶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3월 3일.
1911년 2월 25일 훈5등 홍채하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됨.
- ▶ 『조선총독부관보』, 1921년 5월 3일.
1921년 4월 27일 관제개정에 의해 폐직됨.
-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각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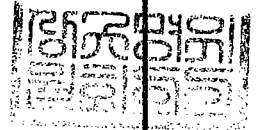
조사시기	이름	소속	관직	수당	공훈

1911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贊議	연 600원	
1912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贊議	연 600원	
1913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贊議	연 600원	
1914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贊議	연 600원	정7
1915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贊議	연 600원	정7
1916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贊議	연 600원	정7
1917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贊議	연 600원	정7
1918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贊議	연 600원	정7
1919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替議	연 600원	정7
1920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贊議	연 600원	정7
1921	洪在夏	조선총독부 중추원	副贊議	연 600원	중6

【참고사항①】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5월 31일.

1912년 8월 1일 <明治45년 칙령 제56호>에 의거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참고사항②】 施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協贊회원을 역임함.

- 출전: 『매일신보』, 1915년 8월 26일 2면.

1915년 8월 23일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京城協贊會의 부회원으로 입회하고, 10원을 납부함.

▣ 기타사항: 한말 단체활동

- 출전: 『대한협회회보』 제9호, 1908년 12월 25일.

대한협회 군산지회 회원

관 단

홍재하는 1895년 이전까지 무관으로서 주로 훈련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농상공부 주사로 변신하여 한일합병 이전까지 농상공부에서 관력을 쌓았다. 정치·사회단체 활동으로는 1908년 12월 당시 대한협회 군산지회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는 한일합병 직후인 1911년 2월 25일 조선총독의 지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되어 1921년 4월 27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개정으로 퇴임할 때까지 약 10년간 직임을 유지하였다. 홍재하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 한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홍재하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임 중이던 1912년 8월 1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915년에는 일제가 식산진흥과 문명개화를 명분으로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한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부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홍재하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